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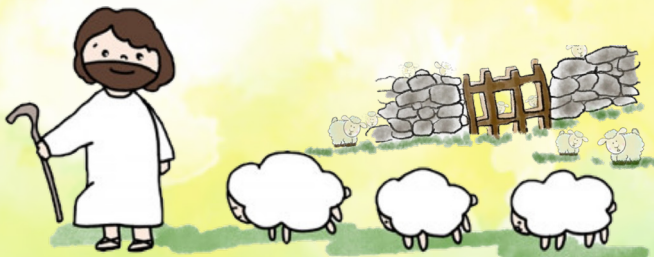
171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문은 언제나 안쪽에서 열립니다.  
주님은 담을 넘는 이가 아니라,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  
그분의 목소리는 낮설지 않고,  
우리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두려움보다 신뢰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이 되는 음성,  
흩어진 삶을 하나로 모으는 부르심.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밖으로 이끄는 성소입니다.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4/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56,070  
현재 참가 인원 - 109명



##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55    예물 준비 성가 : 51, 511    성체 성가 : 180, 165    파견 성가 : 135

부활 제3주일 (4/19)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6명	74명	217명	118명	42명	497명



# 샤를르 드 푸코(1)



20세기 초반 이슬람 종교권인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가진 사하라 사막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피살돼 '사막의 성자'로 알려진 프랑스 출신의 샤를르 드 푸코(1858~1916) 신부. 엘 골레아(El Golea)에 있는 그의 무덤 묘비에 적혀 있는 구절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기에 충분하다.

## 「나는 일생 동안 복음을 외쳐 댔다」

칼(Karl) 형제로 불리기를 좋아했다는 그는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보다 깊이 그리스도교적 믿음과 삶의 원천에 접근하고 이를 실현하려 애썼으며, 예수께서 나자렛에서 사셨던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글자 그대로 살아가려 노력했던 인물이다. 무엇보다 그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적대감이 팽배해 가던 시대 상황 안에서 자신의 삶과 영성으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교회가 산업화로 부상한 노동자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또 가난한 농민들에 대해 적절한 종교 교육을 실천하지 못해 이들이 점차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환경에서 그는 “복음서의 가난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난한 교회가 되어 가난한 도구로 그들에게 다가 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힘을 낼 수 있고, 그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선교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했다. 또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책이나 말을 통하지 않고도 믿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기만 해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를르 드 푸코가 나자렛 예수의 삶을 살고

자 회심하게 된 데에는 여러 과정이 필요했다. 1858년 9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난 그는 다섯 살 때 부모를 잃고 외조부모 댁에서 자랐다. 독실한 신앙을 지녔던 외조부모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종교생활을 하며 성장했지만, 다니던 학교와 주변 여건의 영향으로 첫 영성체 이후 종교적 무관심과 불가지론에 빠져들었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생시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졸업시험에서 동기생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할 만큼 학업 성취도도 높지 않았다. 사관생도이자 장교로서의 삶에서도 그에 걸맞은 품위를 지키지 못해 가족들에게 외면당했고, 친구들에게는 ‘플레이보이’, 즉 ‘돼지 같은 녀석’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는 물려받은 재산을 쾌락을 누리는 데 탕진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알제리로 파견되었고, 이때 매춘부 미미를 자신의 아내라고 속여 함께 데려가는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다. 이러한 나태하고 무질서한 생활, 그리고 무능한 지휘 능력은 결국 그를 파면에 이르게 했다.

군대를 떠난 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추스르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옛 부대가 알제리에서 전투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입대하여 반란을 제압했는데, 이는 느슨했던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전환점이 되었고 군대와 가족으로부터 다시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1883년부터 1884년까지 그는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아르메니아 유대인의 옷차림을 하고 모로코로 탐사 여행을 떠났다. 『모로코 탐험기』는 이때 집필된 것이다. 당시 모로코는 유럽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황이었기에 그의 시도는 큰 관심을 모았고, 파리 지리학회에 그에게 금메달을 수여했다. 이후 이슬람 신자들의 종교적 열성을 경험한 그는 특히 사촌 누이 마리(Marie)의 신앙적 영향으로 회심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훗날

마담 드 봉디(Mme de Bondy)가 된 마리는 그가 방탕한 삶으로 가족에게 외면받던 시절에도 관계를 이어간 인물로, 그의 삶에서 어머니와 같은 친구이자 영적 동반자였다.

## “만약 당신이 계신다면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한 그는 마리의 소개로 당시 저명한 영적 지도자 위벨랭 아빠스를 만나게 되었고, 1886년 10월 어느 날 그에게 고해성사를 보게 된다. 아빠스는 성사 후 성체를 모시도록 권했고, 그는 이를 통해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나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자마자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수도 생활은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마침내 그는 위벨랭 아빠스의 추천으로 네주(Neiges)에 있는 노트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했다. ‘단순한 삶과 가난한 삶’에 대한 열망을 지닌 채, 낮은 자로 세상에 오시어 인간이 되셨다가 배반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공지 사항

1 Rice Bowl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구역장 회의

- 일시 : 4/26(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부모 전체 회의

- 일시 : 4/26(주일) 오후 1:00
  - 장소 : 101호실
- Sunday School, Confirmation Class의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울뜨레야 월례 모임

- 일시 : 5/2(주일) 오전 11:00
  - 장소 : 110호
- 본당 꾸르실리스타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예비 신자 교리반 모집

새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6월에 시작하여 7개월의 준비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에 관심이 있으신 가까운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교리 신청서는 사무실로 문의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리엔테이션
- 일시 : 5/17(주일) 오전 10:00 교중 미사 후
- 장소 : 101호실

6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사 모집

성 김대건 한국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글 및 한국 문화 교육에 힘써 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교육 관련 경력자 환영.
- 수업 시작 : 금요일 오후 6:30 - 9:00 토요일 오전 9:30 - 12:00
- 문의 : sakks10@gmail.com

8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justin123yi@gmail.com

입당송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14-17,36-41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 1 베드 2,20-25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0,1-10 <나는 양들의 문이다.>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박제프 송재민 유영림 안창남 유미자 문상용 한씨니 유주연 이지연 곽노환 이계숙 박원규 이승우 유애림 한천혜 이명희 김경자 이춘자 전윤원 최수영 최병규 김종국 안승훈 안승근 오세영 김요셉 안신자 홍소영 배정규 서용원 오재호 박수익 김성희 오면수 김창문 김기문 신경협 정해영 이용명 황혜숙 호명규 이종성 신길하 박명완 강승호 이장원 Sun Ki Choe Kyung Paik Kim

[교무금 Push Pay] 이윤기 이로서 전영건 송승혜 이진열 김명준 맹성호 김중대 이경아 서은지 조성욱 백승진 이서영 이제용 최영석 안마슈 최종국 안정희 구미경 박주원 [감사헌금] 김한웅 탁희선 이명희 이태경 박의전 한씨니 이정원 이상철 익명 [꽃 봉헌] 민들레 [성소후원회비] 김희순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감사 헌금	꽃 봉헌	-
\$9,707.00	\$7,335.00	\$5,143.10	\$1,180.00	\$100.00	-

**교우 비즈니스 광고**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b>CPA, Cho &amp; Assoc. LLC</b>	<b>박영진 부동산</b>	<b>엠마 스킨 케어</b>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b>	<b>Pearlshining Photo</b>	<b>퀀텟 용자/부동산</b>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b>KCR MEDIA GROUP</b>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b>IRA/401(K)</b>	<b>김현숙 부동산</b>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b>황바로 바오로 CPA</b>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b>동서 한의원</b>	<b>New York Life</b>	<b>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b>	<b>블루밍 치과</b>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b>아틀라스 척추 의료원</b> 14608 Hwy 99 #309 Lynnwood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b>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b>정가네 반찬</b>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b>희망미디어(Hope Media)</b>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b>핸디맨</b>	<b>Bridge Tax Services</b>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b>웅진 코웨이 USA</b>	<b>뉴 해남 식당</b>	<b>Banji (Korean Speed Dating)</b>	<b>시애틀 풀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b>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4/30/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6/20/26)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 제63차 성소 주일

2026년 4월 26일

## 하느님의 선물을 내면에서 발견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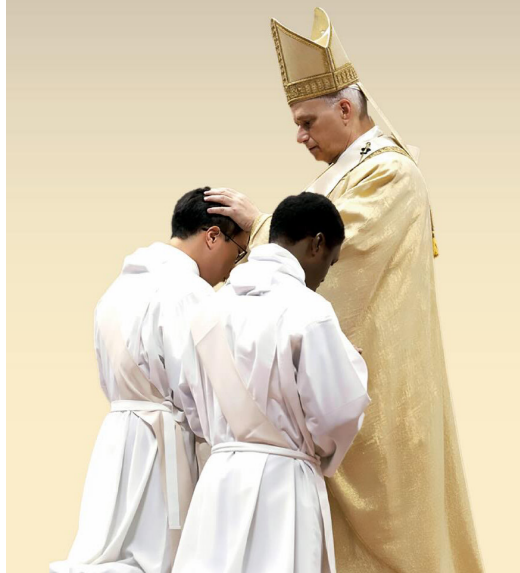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우리는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부르는 부활 제4주일에 제63차 성소 주일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성소의 내적 차원, 곧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무상의 하느님 선물을 발견하는 것인 성소에 관하여 함께 성찰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를 따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 아름다움의 길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ὁ ποιμὴν ὁ καλὸς ὁ ξθός)(요한 10,11)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표현은 자기 양 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주고자 하는 완전하고 참되며 모범적인 목자,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목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목자시니,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따를 때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육신의 눈이나 미적 감각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상과 내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멈추어 서서, 듣고, 기도하며 그분의 눈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신뢰에 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움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으로 '아름답게' 되는 일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변모시킵니다. 신학자 파벨 플로렌스키가 말했듯이, 수덕 생활은 그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냅니다. 실제로 성인들의 고유한 특징은 선함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빛나는 영적 아름다움입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루카 7,14



성소는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반영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에 함께하는 것이 임이 드러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도 생명과 믿음, 의미에 대한 이러한 내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인은 『고백록』(Confessiones) 제3권에서 젊은 시절의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의 가장 내밀한 곳보다 더 내밀하게" 자리하시는 하느님을 알아웁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넘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빛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성인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이루는 자리인 내적 삶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와 침묵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간다면, 성소라는 선물을 받아들이

고 이에 적극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성소는 결코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획일적 모델도 아닙니다. 성소는 오히려 사랑과 행복의 모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내적 삶을 돌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 성소 사목과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모든 이, 곧 가정과 본당과 수도 공동체는 물론 주교, 신부, 부제, 교리 교사, 교육자,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권고합니다.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며 보호하고 동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더욱 온전히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 있는 믿음으로 빛나고 끊임없는 기도로 뒷받침되며 형제적 동반으로 풍요로워져야만, 하느님의 부르심은 싹트고 자라나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세상을 위한 행복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 길을 걷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 상호 인식

"생명의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십니다." 참으로 모든 성소는, 하느님께서 사랑이심을(1요한 4,16 참조) 깨닫고 경험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아주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고(마태 10,30 참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거룩함과 봉사의 길을 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앎은 언제나 상호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의 경청, 성사, 교회 생활, 형제자매들을 위한 애덕 활동 등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아뵈도록 초대받습니다.



한밤중에 예기치 못하게 주님 목소리를 듣고 엘리 도움으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소년 사무엘처럼(1사무 3,1-10 참조),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내적 침묵의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송고한 관념이나 학문적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인격적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소는,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음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가 진정 기쁘게 또 아낌없이 응답하도록 초대하시는 유일하신 하느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를 수반합니다.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는 내적 인간 안에 머무릅니다”(Noli foras ire, in te ipsum redi, in interiore homine habitat veritas).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잠시 멈추어 내적 침묵의 자리를 마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각자의 талан트를 활용하도록 부르시며(마태 25,14-30 참조), 자신의 한계와 약점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봉헌하게 하시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체 앞에 머무르며 조배를 하고, 하느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묵상하며, 교회의 성사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우정을 통하여 여러분은 혼인이든 사제직이든, 종신 부제직이든 축성 생활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소는 교회 그리고 그 성소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해야 할 수 없이 큰 선물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과 그분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는 모든 성소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 신뢰

얇은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확신은 믿음에서 씬

숫는 마음가짐이며, 자신의 성소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그 성소를 지켜 나가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삶은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뒤엎들어 놓을 때조차 그러합니다.

요셉 성인을 생각해 봅시다. 동정녀의 잉태라는 뜻밖의 신비 앞에서, 요셉 성인은 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그 아기를 받아들였습니다(마태 1,18-25; 2,13-15 참조). 나자렛 사람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모범을 보여 준 인물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과 불확실성에 휩싸인 듯 보일 때,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확신하며 하느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 탄생 예고 때의 마리아와 갓세마니 동산의 예수님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소서.’(fiat)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희년이 일깨워 주었듯이, 우리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든 우리 개인의 역사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며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두운 밤을 보낼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려 오십니다. 우리는 시련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빛과 힘을 통하여 우리의 성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움을 더욱 충만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처 입고 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충실함과 신뢰로 빛은 것입니다.

## 성숙

실제로 성소는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으로 유지되는 역동적인 성숙의 과정입니다. 성소를 키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다양한 삶의 상황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선물에 비추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요한 15,1-8 참조), 우

리 삶 전체는 주님과 굳건하고 생생한 유대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는, 흔히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맺어가는 참되고 형제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발견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동반하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의 성소가 그 모든 아름다움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성소를 식별하고 검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성소는 즉시 소유할 수 있는 것, 단 한번에 전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소는 인간의 삶처럼 점차 펼쳐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보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서 영양분을 얻음으로써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소라는 선물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 자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소는,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순전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응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마련해 두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하느님께 자신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성소라는 선물이 성숙해져,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범이시며 기도와 경청의 스승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이 여정에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3월 16일  
레오 14세 교황